

平澤綜合社會福祉館 건립추진을 위한 調査 研究*

金範洙**, 李鍾福***

I. 序 論	III. 平澤市民의 社會福祉館에 대한 認識 및 態度
1.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1. 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한 태도
2. 연구방법	2. 실시사업의 우선순위
3. 연구내용	3. 각 사업별 원하는 프로그램
4. 평택시의 지역적 특성	IV. 結 論
II. 平澤市民의 福祉慾求	1. 요약
1. 필요로 하는 서비스	2. 평택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을 위한 제언
2. 경제적인 측면	
3. 건강 4. 교육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평택(平澤)시는 경기도 서남단에 위치한 인구 8만의 중소도시이다. 평택시에서는 “전시민이 화합단결하여 지역의 안정과 균형발전을 성취하자”는 시정목표와 “지방화시대를 맞아 미래의 청사진 마련에 역점을 두자”는 시정방침아래 신뢰(信賴)와 화합(和合) 그리고 약진(躍進)의 도시로 발돋움 하고 있다. 1)

최근 우리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와 갈등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다. 또한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많은 개혁이 이루

* 이 논문은 平澤市廳의 研究費 支援에 의하여 「地方自治制와 平澤市 地域福祉모형에 관한 연구-平澤綜合社會福祉館건립을 위한 기초조사-」의 내용중 일부를 요약했음.

** 皮漁善 神學校 社會福祉學科 專任講師

*** 皮漁善 神學校 社會福祉學科 助教授

1) 평택시 “1989년도 시정보고” p. 15.

어 지리라 예상된다. 사회복지분야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 같다. 보건사회부에서는 제 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기간 중에 각 도시의 영세민거주지역 및 도시서민 임대 주택 단지내에 92년도까지 전국에 110개소 이상의 사회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보건사회부에서는 '89년 6월에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²⁾을 제정한 바 있다. 이 운영규정 제 3조에서는 사회복지관의 목표를 "사회복지관은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중산층으로 유도하고, 지역사회문제를 예방, 치료하며 지역사회 및 주민의 연대감을 조성하는 매체로서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복지센터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88년도까지만 해도 약 40여개에 불과하던 사회복지관이 금년도에 20여개소가 증설되어 '89년 10월 현재 60여개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92년까지 사회복지관을 110개소로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에도 300~1,000평 규모의 종합사회복지관을 의무적으로 건립할 계획³⁾을 갖고 있어 실제적으로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평택시에는 사회복지시설인 천해보육원과 동방어린이동산내에 영아시설, 미혼모시설, 장애인시설을 포함하여 4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있으나 종합사회복지관은 아직 설립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평택시민들은 평택시를 가리켜 소비도시 내지는 위성도시,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는 사회문제가 많은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다.⁴⁾ 본 연구는 평택시민의 욕구와 일반적인 사항들을 좀 더 과학적으로 규명 및 분석하여 평택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시도되었는데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택시민의 복지의식과 복지욕구를 분석하여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사업내용)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한다.

둘째, 사회복지관에 대한 인식 및 태도와 앞에서 분석된 내용을 종합하여 평택종합사회복지관의 건립추진방법을 제시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평택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복지의식, 복지욕구, 사회복지관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대한 조사연구이다. 이 조사는 표본의 선

2) 보건사회부 "사회복지관설치 운영규정", 보건사회부훈령 제568호, 1989. 6.

3) 조선일보, 1989. 8. 25(금), 17면.

4) 설문지 검토를 위한 예비조사에서 주민과의 면접, 1989. 6. 5~10.

정, 질문지의 작성, 자료의 수집, 자료의 처리 및 분석의 단계를 거쳐서 수행되었다.

1) 표본의 선정

본 연구의 모집단은 평택시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평택시는 전체가 6개동(서부, 신평, 통북, 비전 1, 비전 2, 세교)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각 동에서 동적부를 통해 30번씩마다 1가구씩 선정하여 그 중 협조의사를 표명한 사람을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조사대상자의 동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동별 분포

동 명	세대수
서 부 동	81
신 평 동	94
통 북 동	81
비전1동	83
비전2동	92
세 교 동	81
합 계	512

2) 조사도구

조사도구로는 본교 연구팀이 작성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설문지는 크게 4부분으로 나누어, 평택시민의 생활실태, 평택시민의 가정문제, 평택시민의 복지욕구, 평택시민의 사회복지관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대한 내용이다. 이 설문지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전문가들로부터 안면타당도를 검증받았다.

3) 자료의 수집

완성된 설문지는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보완한 후, 본교 사회복지학과 2, 3학년 학생들이 각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면접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예비조사는 1989년 6월 30일에 예상 조사대상자의 5%인 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본 조사는 1989년 7월 3일부터 7월 8일까지 1주일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4) 자료의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프로그램에 의해서 전산처리 되어, 최종적으로 본교 연구팀들이 분석처리 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로 사용한 통계방법은 빈도, 백분율, Crosstab 등이다.

3. 연구내용

본 연구는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평택시의 지역복지모델을 제시하려고 시도되었다. 본고에서 논하려는 지역복지모델이란 사회복지관을 의미한다. 즉, 평택시에 사회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운영주체가 누가 되어야 할 것이며,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 것인가 라는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하여 평택시민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네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로 서론부분에서는 문제의 제기와 평택시의 지역적특성을 살펴 보았다.

둘째는 평택시민에 대한 실제조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분석하여 보았다.

(1) 평택시민의 복지욕구(필요로 하는 서비스, 경제적 측면, 건강, 교육)

(2) 평택시민의 사회복지관에 대한 인식 및 태도(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한 태도, 실시사업의 우선순위 및 원하는 프로그램)

셋째는 결론부분으로 이상에서 조사연구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평택종합사회복지관건립을 위한 사회복지관의 유형, 설립위치, 부지의 확보, 운영주체, 재원, 추진위원회의 조직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그리고 본 연구를 실제적으로 조사 분석함에 있어서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그동안의 조사보고서는 대부분이 기존 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밖에 없었다. 또한 평택시와 유사한 중소형 도시에 관하여 이 보고서와 같은 내용의 조사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상호 비교 분석을 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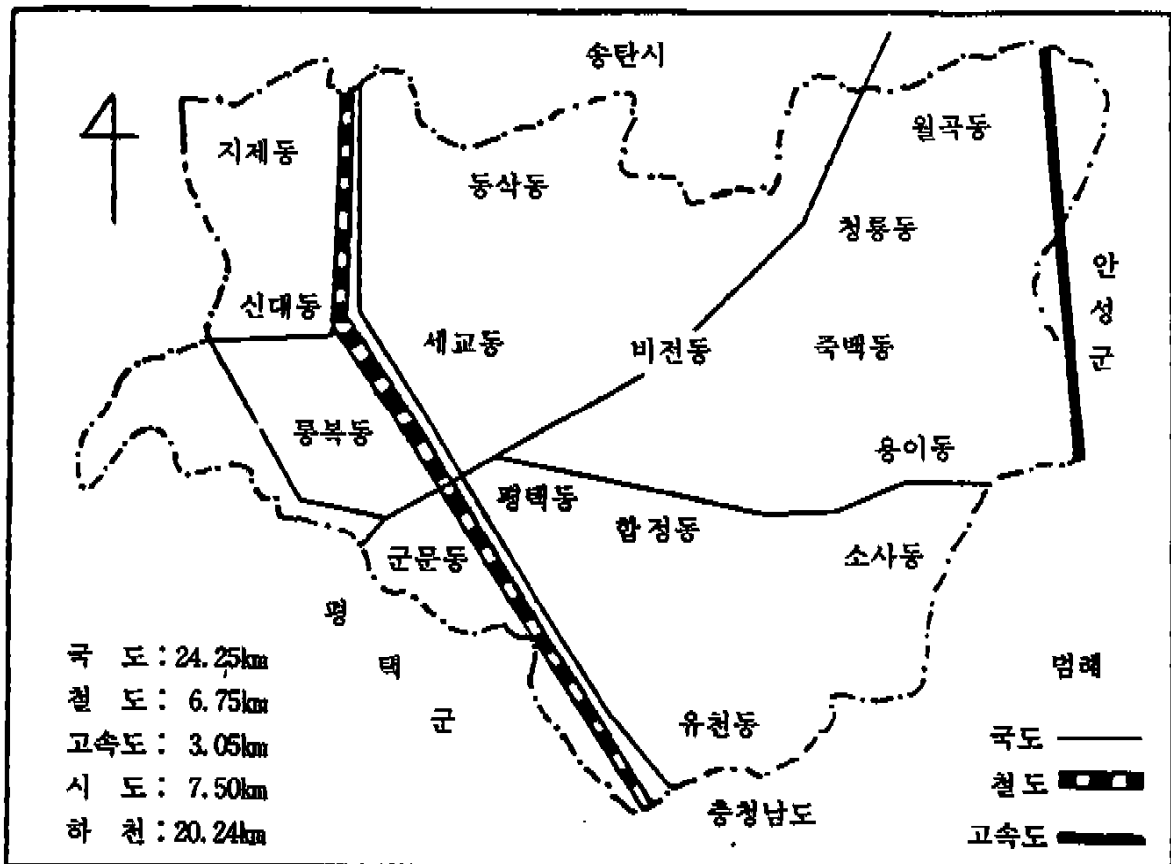
현재의 사회복지관은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전국적으로 보아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대부분이어서 사회복지관에 관한 일반국민들의 인식은 매우 희박하다. 따라서 앞으로 사회복지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 특히 중소도시에서 사회복지관을 설치하려고 할 때 본 보고서는 상호비교연구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

4. 평택시의 지역적 특성

1) 연혁

평택시는 고구려 때 부터 부성현(釜城縣), 부산현(釜山縣), 진위현(振威縣) 등의 명칭으로 불리워졌으며, 1914년 진위군 병남면(振威郡 丙南面), 1926년

진위군 평택면(平澤面)에서 1938년 평택군 평택읍(平澤郡 平澤邑)으로 변천되었다. 평택(平澤 : 평평할 平, 못 澤)이라는 의미 그대로 평택시는 대부분이 평야지대로 예전 수리시설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에는 홍수 때마다 큰 물이 나서 연못을 방불케할만한 지역이었는데 평택이라는 명칭이 붙게된 것도 바로 이러한 지리적 특성에서 연유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 후 1974년 준 시체제, 1979년



〈그림 1〉 평택시 각 동의 배치

(단위 : km)

시						
0.7	신평					
1.0	1.3	서부				
0.3	0.9	0.9	통북			
0.9	1.1	1.9	0.9	비전 1		
1.3	1.3	2.3	1.6	1.3	비전 2	
1.7	2.1	1.8	1.7	2.5		세교

〈그림 2〉 각 동간 거리표

읍직제 개편, 1983년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안성군 일부지역(원곡면 4개리, 공도면 1개리)이 평택지역내에 편입되었으며, 1986년 1월 1일자로 시승격이 이루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지역적 특성

경기도의 서남쪽에 위치한 평택시는 총면적 43.03km²으로 현재 총 74,952명(19,123세대)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안성군에, 남쪽으로는 충남 천원군에, 서쪽으로는 평택군 팽성읍에, 서북쪽으로는 송탄시에 접하고 있다. 또한 세칭 곡창지대로 벼농사가 잘되며, 구릉지 개발로 낙농과수가 발달하여 특히 맛 좋은 평택 배의 주산지로 유명하기도 하다. 이러한 평택시의 지역적 특성을 지리적인 면과 사회적인 면 그리고 경제적인 면의 세가지 측면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리적인 면에서는 송탄시, 안성군, 평택군, 충남천원군 등 경기 남부 4개도시의 중심권으로 교통의 중심지이며, 둘째로 사회적인 면에서는 국민학교 6개교, 중·고교 12개교, 대학 1개교 등을 갖춘 교육중심 도시인 동시에 서해안 개발의 중추인 평택항의 배후도시이다. 셋째로 경제적인 면에서는 금융기관 12개소, 증권회사 1개소를 갖춘 이웃 시군의 경제적인 상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평택군 팽성읍의 K-6과 송탄시에 있는 K-55의 양 미군주둔기지 배후에 있는 서비스업 중심의 소비도시라고도 할 수 있다.

현재 평택시는 행정동 6개동(법정동 15개), 122통 499개 반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행정동과 법정동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는 법정동임.

- ① 신평동(합정동, 유천동, 평택동)
- ② 서부동(군문동, 평택동)
- ③ 통북동(통북동, 평택동)
- ④ 비전1동(동삭동, 죽백동, 청룡동, 월곡동)
- ⑤ 비전2동(용이동, 소사동)
- ⑥ 세교동(신대동, 지재동, 세교동)

II. 평택시민의 복지욕구

1. 필요로 하는 서비스

시민의 복지욕구를 알기 위하여 우선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영세민 국가지원, 상담, 시설의 3측면에서 알아 보았다.

1) 영세민에 대한 국가 지원

영세민에 대한 필요한 순서대로 국가지원이 무엇인지 필요한 순서대로 3가지를 조사한 결과는 <표 2, 표 3, 표 4>와 같다. 표를 보면 영세민에 대한 국가지원 중 가장 필요한 것으로 지적한 것은 취업알선 45.2%, 생계비 지원 22.1%, 직업훈련 13.8%, 의료비 지원 7.3%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를 보면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구직과 관련된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지적된 경우가 59%로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영세민에게 필요한 국가지원 중 두번째로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을 보면 취업 알선 29.0%, 의료비 지원 22.7%, 직업훈련 20.7%, 학자금 지원 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도 역시 구직과 관련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경우가 49.7%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의료비 지원에 대한 필요를 지적한 경우가 22.7%로 많아졌다. 영세민에게 필

(표 2) 영세민에게 필요한 국가지원의 종류(가장 필요한 것)

국가지원의 종류	인 원 수	백 분 율
생계비 지원	112	22.1
취업알선	229	45.2
직업훈련	70	13.8
의료비 지원	37	7.3
학자금 지원	27	5.3
장사밀천, 생업자금지원	20	3.9
시설수용 보호	7	1.4
기타	5	1.0
합 계	507	100.0

(표 3) 영세민에게 필요한 국가지원의 종류(두번째로 필요한 것)

국가지원의 종류	인 원 수	백 분 율
생계비 지원	40	8.1
취업알선	143	29.0
직업훈련	102	20.7
의료비 지원	112	22.7
학자금 지원	58	11.8
장사밀천, 생업자금지원	30	6.1
시설수용 보호	8	1.6
기타	0.0	0.0
합 계	493	100.0

요한 국가지원으로 3번째로 지적된 것은 의료비 지원 28.0%, 학자금 지원 21.2%, 취업알선 12.6%, 장사밀천·생업자금 지원 11.8%, 직업훈련 11.3%, 생

계비지원 10.5% 등의 순이다. 3 번째로 지적된 것에는 앞서 지적된 구직과 관련된 지원보다 의료비, 학자금, 생업자금 등 금전적자원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표 4) 영세민에게 필요한 국가지원의 종류(3 번째로 필요한 것)

국가지원의 종류	인 원 수	백 분 율
생계비 지원	51	10.5
취업알선	61	12.6
직업훈련	55	11.3
의료비 지원	136	28.0
학자금 지원	103	21.2
장사밀천, 생업자금지원	57	11.8
시설수용 보호	15	3.1
기타	7	1.4
합 계	485	100.0

(표 5) 가족전체의 수입에 따른 영세민에게 필요한 국가지원 인식

수입	국가지원				
	생계비지원	취업알선	직업알선	의료비지원	학자금지원
20만원이하	32.1	12.9		10.7	3.6
20~40만원	22.6	46.6	10.3	10.3	4.1
40~60만원	22.7	43.2	10.6	9.1	7.6
60~80만원	18.5	49.2	13.8	6.2	4.6
80~100만원	6.1	55.1	22.4		10.2
100~120만원	46.2	30.8	23.1		
120만원이상	19.4	38.9	30.6	2.8	
합계(실수)	21.3(100)	45.6(214)	13.4(63)	7.5(35)	5.3(25)

수입	국가지원				합계(실수)
	장사밀천, 생업자금지원	시설수용보호	기 타		
20만원이하	7.1		3.6		100.0(28)
20~40만원	4.1	2.1			100.0(146)
40~60만원	5.3	0.8	0.8		100.0(132)
60~80만원	4.6	1.5	1.5		100.0(65)
80~100만원	4.1		2.0		100.0(49)
100~120만원					100.0(13)
120만원이상		5.6	2.8		100.0(36)
합계(실수)	4.3(20)	1.5(7)	1.1(5)		100.0(469)

P=.0356

영세민에게 가장 필요한 국가 지원에 대한 인식은 가족 전체의 수입에 따라 5%수준에서, 세대주의 학력에 따라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가족 전체의 수입에 따른 영세민에게 가장 필요한 국가 지원에 대한 인식을 보면 월 수입이 20만원 이하인 영세한 가정은 구직보다는 당장의 물질적 원조의 필요성을 더 강조하고, 월 수입이 60~100만원인 가정에서는 당장의 물질적 원조보다는 구직과 관련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영세민 자신은 물질적 원조의 급박함을 체험하고 있고, 중산층의 경우는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세대주의 학력에 따른 영세민에게 가장 필요한 국가 지원에 대한 인식을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구직과 관련된 지원의 필요성을 더 많이 인식하고 학력이 낮아지면 당장의 물질적 지원의 필요성을 더 크게 인식한다. (<표 6>)

〈표 6〉 세대주의 학력에 따른 영세민에게 필요한 국가지원 인식

국가지원 학력	생계비지원	취업알선	직업훈련	의료비지원	화자금지원
대졸이상	14.6	49.0	21.9	4.2	6.3
고 졸	22.7	46.8	14.6	6.4	4.3
중 졸	26.4	50.5	6.6	5.5	3.3
국 졸	21.2	26.9	15.4	15.4	11.5
국졸이하	36.4	22.7	4.5	13.6	9.1
합계(실수)	22.2(110)	44.6(221)	14.1(70)	7.3(36)	5.5(27)

국가지원 학력	장사밀천, 생업자금지원	시설수용보호	기 타	합계(실수)
대졸이상	2.1	1.0	1.0	100.0(97)
고 졸	2.1	2.0	0.9	100.0(233)
중 졸	5.5		2.2	100.0(91)
국 졸	7.7	1.9		100.0(52)
국졸이하	13.6			100.0(22)
합계(실수)	3.8(19)	1.4(7)	1.0(5)	100.0(495)

P=.0023

2) 필요상담

현재 조사대상자의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상담 2가지를 필요한 순서대로 조사한 결과는 <표 7, 표 8>이다. 표를 보면 가장 필요한 상담은 자녀교육상담으로 33.4%에 이른다. 그외는 주택상담 9.2%, 취업알선 7.7%, 법률상담 6.7% 등의 순이다. 그리고 상담이 필요없다고 답한 응답자도 전체의 33.

〈표 7〉 필요한 상담의 종류(가장 필요한 것)

상담의 종류	인 원 수	백 분 율
필요 없다	165	32.4
자녀교육상담	170	33.4
법률상담	34	6.7
취업알선	39	7.7
세무상담	27	5.3
주택상담	47	9.2
가정상담	18	3.5
기타	9	1.8
합 계	509	100.0

〈표 8〉 필요한 상담의 종류(두번째로 필요한 것)

상담의 종류	인 원 수	백 분 율
필요 없다	169	42.9
자녀교육상담	16	4.1
법률상담	19	4.8
취업알선	13	3.3
세무상담	34	8.6
주택상담	71	18.0
가정상담	66	16.8
기타	6	1.5
합 계	394	100.0

〈표 9〉 세대주의 연령에 따른 필요상담

연령	필요상담				
	필요 없다	자녀교육상담	법률상담	취업알선	세무상담
30세이하	29.2	25.0	14.6	2.1	10.4
31~40세	28.1	37.6	5.6	3.9	6.7
41~50세	32.7	46.9	6.2	6.2	2.7
51~60세	37.6	25.7	7.9	9.9	4.0
61세이상	37.7	17.4	2.9	20.3	4.3
합계(실수)	32.4(165)	33.4(170)	6.7(34)	7.7(39)	5.3(27)

연령	필요상담			
	주택상담	가정상담	기 타	합계(실수)
30세이하	18.8			100.0(48)
31~40세	12.4	4.5	1.1	100.0(178)
41~50세	2.7	2.7		100.0(113)
51~60세	9.9	2.0	3.0	100.0(101)
61세이상	4.3	7.2	5.8	100.0(69)
합계(실수)	9.2(47)	3.5(18)	1.8(9)	100.0(509)

P=.0000

4%에 이르고 있다.

현재 가정에서 필요한 상담으로 두번째로 지적된 것은 주택상담 18.0%, 가정상담 16.8%, 법률상담 4.8%, 자녀교육상담 4.1% 등의 순이다. 이를 보면 가장 조언이 필요한 부분은 자녀교육의 문제이고 그 다음은 주택문제, 가정문제임을 알 수 있다.

가정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지적된 상담은 세대주의 연령, 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우선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면 세대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상담의 필요성을 덜 느끼고 있으며, 자녀교육상담의 필요성은 아동기 및 청소년기의 자녀를 양육하는 31~50세의 연령층이 높이 인식하고 61세 이상은 노년층 실직으로 인한 취업알선 상담의 필요성을 높이 느끼고 있다. 또한 주택상담의 필요성은 젊은층인 2,30대가 많이 느끼고 있다.

세대주의 학력에 따른 필요상담을 보면 학력이 낮을수록 취업알선, 주택상담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표 10> 세대주의 학력에 따른 필요상담

필요상담 학력	필요없다	자녀교육상담	법률상담	취업알선	세무상담
대졸이상	39.0	34.0	9.0	1.0	2.0
고 졸	29.9	38.1	6.9	5.6	6.5
중 졸	33.0	29.7	3.3	13.2	6.6
국 졸	32.7	23.1	9.6	11.5	3.8
국졸이하	36.4	4.5	4.5	27.3	4.5
합계(실수)	32.9(163)	32.7(162)	6.9(34)	7.7(38)	5.2(26)

필요상담 학력	주택상담	가정상담	기 타	합계(실수)
대졸이상	11.0	4.0		100.0(100)
고 졸	9.5	2.6	0.9	100.0(231)
중 졸	8.8	4.4	1.1	100.0(91)
국 졸	7.7	5.8	5.8	100.0(52)
국졸이하	4.5	4.5	13.6	100.0(22)
합계(실수)	9.3(46)	3.6(18)	1.8(9)	100.0(496)

P=.0005

3) 필요시설

정부나 사회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마련해 주기를 희망하는 시설을 가장 필요한 순서대로 3가지를 조사한 결과는 <표 11, 표 12, 표 13>과 같다. 표를 보면 가장 필요한 시설로 지적된 것은 종합 사회복지관 34.7%, 도서

실 20.7%, 보건소 8.6% 등의 순이다. 이를 자세히 보면 아동복지를 위한 시설을 지적한 경우는 9.4%, 청소년복지를 위한 시설 20.7%, 가정복지를 위한 시설 9.4%, 노인복지를 위한 시설 4.5%, 종합사회복지관 34.7%로 나타난다.

지역사회를 위해 필요한 시설 중 두번째로 지적된 것은 종합사회복지관 23.0%, 도서실 17.0%, 양로원 9.4%, 노인정 8.4% 등의 순으로 노인복지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의 비율이 17.8%로 늘었다.

(표 11) 지역사회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가장 필요한 것)

필요 시설	인원 수	백분율
보건소	44	8.6
새마을 유아원	22	4.3
유치원	9	1.8
도서실	106	20.7
노인정	24	4.7
양로원	29	5.7
가정상담소	27	5.3
종합사회복지관	178	34.7
직업소개소	21	4.1
신체장애자시설	23	4.5
어린이놀이터	17	3.3
기타	13	2.5
합 계	513	100.0

(표 12) 지역사회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두번째로 필요한 것)

필요 시설	인원 수	백분율
보건소	26	5.2
새마을 유아원	31	6.2
유치원	9	1.8
도서실	85	17.0
노인정	42	8.4
양로원	47	9.4
가정상담소	38	7.6
종합사회복지관	115	23.0
직업소개소	35	7.0
신체장애자시설	38	7.6
어린이놀이터	23	4.6
기타	10	2.0
합 계	499	100.0

지역사회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3번째로 지적된 것은 종합사회복지관 16.

8%, 어린이 놀이터 12.9%, 신체장애자 시설 12.7%, 도서실 9.9% 등의 순이다.

이를 종합하면 지역사회를 위하여 가장 필요한 시설이라고 주민들이 인식하는 것은 종합사회복지관이고 다음 도서실, 노인복지시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3〉 지역사회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세번째로 필요한 것)

필요 시설	인원 수	백분율
보건소	20	4.1
새마을 유아원	25	5.1
유치원	11	2.3
도서실	48	9.9
노인정	25	5.1
양로원	43	8.8
가정상담소	44	9.0
종합사회복지관	82	16.8
직업소개소	48	9.9
신체장애자시설	62	12.7
어린이놀이터	63	12.9
기타	16	3.3
합 계	487	100.0

2 경제적 측면

경제적 측면에서의 복지욕구는 취업 및 부업에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1) 취업

가족 중 취직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14〉와 같

〈표 14〉 구직자 유무

구직자 유무	인원 수	백분율
없다	410	81.5
부	11	2.2
모	17	3.4
장남	28	5.6
장녀	8	1.6
차남	15	3.0
차녀	4	0.8
기타	10	2.0
합 계	514	100.0

다. 표를 보면 81.5%가 없다고 답을 하였고 그외 18.5%는 구직 중이었다. 구직자를 보면 장남이 5.6%로 가장 많고 어머니 3.4%, 차남 3.0%, 아버지 2.2%의 순이었다. 구직자가 18.5%라는 사실은 이들에 대한 직업훈련 및 알선을 하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겠다.

2) 부업

부인이 부업을 원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표를 보면 부업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59.8%, 시간제 부업을 원하는 사람이 19.7%,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18.0%, 파출부를 원하는 사람이 2.5%로 40.2%가 현재 부업을 하고 있거나 부업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시간제 부업을 원하는 사람의 경우 적합한 부업의 내용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16>과 같다. 표를 보면 전체의 84.4%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원하였고 5.2%가 파출부, 4.2%가 탁아모를 원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지역단위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15> 부인의 부업 희망 여부

내 용	인 원 수	백 분 율
원하지 않는다	292	59.8
현재 하고 있다	88	18.0
파출부를 원한다	12	2.5
시간제 부업을 원한다	96	19.7
합 계	488	100.0

<표 16> 부인이 부업을 원할 경우 적합한 일

원하는 부업	인 원 수	백 분 율
집에서 할 수 있는 일	81	84.4
파출부	5	5.2
탁아모	4	4.2
기타	6	6.3
합 계	96	100.0

3. 건강

본 연구에서는 평택시민의 건강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심신장애자, 만성질환자의 존재여부, 건강에 대한 문제의 해결방법을 조사하였다.

1) 심신장애자

조사대상자의 가족 중 심신장애자의 존재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표 17>

과 같다. 표를 보면 심신장애자가 있는 가구는 23세대로 전체의 4.5%에 달하고 있다. 이 비율을 평택시 전체 인구⁵⁾에 적용시켜보면 약 3,372명으로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현황 및 욕구를 파악하고 장애자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표 17) 심신장애자 유무

장애자 유무	가 구 수	백 분 율
없다	483	95.5
있다	23	4.5
합 계	506	100.0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의 종류를 조사한 결과는 (표 18)과 같다. 표를 보면 장애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지체장애로 전체의 58.8%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중심으로한 장애자복지 서비스의 개발이 요청된다 할 수 있겠다.

심신장애자가 있는 경우 장애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19)와 같다. 이를 보면 경증 장애가 70.6%이고 중증장애 23.5%, 중복장애 5.9%이다. 이들 중 다수를 차지하고 실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경증장애자를 중심으로 하는 장애자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표 18) 장애의 종류

종 류	인 원 수	백 분 율
청 각	2	11.8
시 각	1	5.9
지 체	10	58.8
언 어	1	5.9
정 신	2	11.8
정신박약	1	5.9
합 계	17	100.0

(표 19) 장애의 정도

정 도	인 원 수	백 분 율
중 복 장 애	1	5.9
중 중 장 애	4	23.5
경 중 장 애	12	70.6
합 계	17	100.0

5) 평택시 전체인구 : 74,952명.

2) 만성질환자

가족 중 만성질환자의 존재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20>과 같다. 표를 보면 만성질환자가 있는 경우는 전체의 18.8%인 93세대이다. 가족내 만성질환자가 있는 경우 가족내 위치는 거의 80%가 부모이고 부모 중 어머니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20> 가족중 만성질환자 유무

만성질환자	세대수	백분율
없다	40.2	81.2
부	30	6.1
모	42	8.5
아들	3	0.6
딸	3	0.6
기타	15	3.0
합계	495	100.0

3) 건강 문제 해결 방법

(1) 만성질환

만성질환자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21>과 같다.

표를 보면 만성질환에 해당하는 사람은 120명으로 전체의 25.4%에 해당하며 이들 120명을 대상으로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조사한 결과는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64.2%, 약국을 이용하는 경우가 21.7%로 대부분인 85.9%가 병원과 약국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만성질환자의 건강문제 해결방법

해결방법	인원수	백분율
내버려둔다	9	1.9
약국 이용	26	5.5
병원 이용	77	16.3
민간요법 이용	8	1.7
무해당	352	74.6
합계	472	100.0

(2) 정신질환

정신질환자의 건강 문제 해결 방법을 보면 <표 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신질환자는 전체의 7.1%에 해당하는 33명으로,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75.8%에 해당하고 내버려 두는 경우가 18.2%에 해당했다. 만성질환자의 경우는

내버려두는 경우가 7.5%임을 볼때 정신질환의 경우는 처치를 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22〉 정신질환자의 건강문제 해결방법

해결 방법	인원 수	백분율
내버려 둔다	6	1.3
약국 이용	1	0.2
병원 이용	25	5.4
민간요법 이용	1	0.2
무해당	431	92.9
합 계	464	100.0

(3) 신체장애

신체장애자의 건강문제 해결방법을 보면 〈표 23〉과 같다. 표를 보면 신체장애자는 전체의 12.8%인 60명에 이르는 데, 이들의 88.3%인 53명은 병원을 이용하고 8.3%인 5명은 약국을 이용하여 전체의 96.6%가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3〉 신체장애자의 건강문제 해결방법

해결 방법	인원 수	백분율
내버려 둔다	1	0.2
약국 이용	5	1.1
병원 이용	53	11.3
민간요법 이용	1	0.2
무해당	409	87.2
합 계	469	100.0

(4) 허약체질

허약체질의 건강문제 해결방법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24〉와 같다. 표를 보면 허약체질은 전체의 38.6%인 185명으로 기타의 건강문제보다 그 비율이 높았다. 이들의 건강문제 해결방법을 보면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40.

〈표 24〉 허약체질의 건강문제 해결방법

해결 방법	인원 수	백분율
내버려 둔다	20	4.2
약국 이용	58	12.1
병원 이용	75	15.7
민간요법 이용	32	6.7
무해당	294	61.4
합 계	479	100.0

5%, 약국을 이용하는 경우가 31.4%, 민간요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17.3%, 아무 처치도 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경우가 10.8%로 나타났다.

4. 교육

평택시민의 교육에 대한 복지 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진학하지 못한 자녀의 존재여부, 학령전 아동의 교육방법, 자녀문제의 종류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다.

1) 진학

자녀 중 취학 연령에도 불구하고 집안 사정으로 인하여 진학하지 못한 자녀의 존재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표 25>와 같다. 표를 보면 진학하지 못한 자녀가 있는 경우는 전체의 3.3%로 나타났다. 이들 중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한 경우가 85.7%로 가장 많고 국민학교, 중학교 진학을 포기한 경우는 각기 7.15%로 나타났다.

<표 25> 진학하지 못한 자녀 유무

진학하지 못한 학교	인 원 수	백 분 율
없 다	472	96.7
국민학교	2	0.4
중학교	2	0.4
고등학교	12	2.5
합 계	488	100.0

진학하지 못한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는 <표 26>과 같다. 표를 보면 경제적 이유로 진학하지 못한 경우가 84.6%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표 26> 진학하지 못한 이유

이 유	인 원 수	백 분 율
경제적 이유	11	84.6
실력이 없어서	1	7.7
학교생활 부적응		
기타	1	7.7
합 계	14	100.0

2) 학령전 아동의 교육

집에 학령전 아동이 있는 경우 그 교육방법을 조사한 결과는 <표 27>과 같다. 표를 보면 유치원 35.1%, 음악·미술·체육 등의 사설학원 19.4%, 집에

서 부모가 돌보는 경우가 17.5%, 새마을 유아원 10.0%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보면 학령전 아동의 81.1%가 가정 이외의 곳에서 교육을 받고 있

〈표 27〉 학령전 아동의 교육방법

교육 방법	세 대 수	백 분 율
새마을 유아원	21	10.0
유치원	74	35.1
사설학원(음악·미술·체육)	41	19.4
집에서 부모가 교육	37	17.5
형편상 부모도 돌보고 있지 못하다	3	1.4
기 타	35	16.6
합 계	211	100.0

음을 알 수 있다.

3) 자녀문제

자녀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의 응답결과는 〈표 28〉과 같다. 표를 보면 자녀문제로 지적된 것은 상급학교 진학(24.4%), 성적불량(17.0%), 건강(16.0%) 등의 순이다. 이를 보면 자녀문제로 지적된 것 중 가장 많은 것은 성적과 관련된 것으로 성적불량, 상급학교 진학을 합하면 전체의 41.4%에 이르고 있고, 자녀의 행동 및 생활태도의 문제를 지적한 경우는 극히 적어서 품행 불량, 도벽, 흡연, 음주, 거짓말, 싸움, 탈선·비행, 낭비벽, 가출을 모두 합

〈표 28〉 세대주 처의 연령에 따른 자녀문제 인식

자녀문제 연령	성적불량	상급학교진학	학교출석	친구문제	건 강	신체장애	정신장애
30세이하	7.1	2.4		7.1	45.2		
31-40세	24.4	19.8		8.1	18.6		
41-50세	20.4	41.9	1.1	6.5	5.4		1.1
51-60세	11.5	28.8	1.9		11.5		
61세이상	10.3	10.3		12.8	10.3	5.1	
합계(실수)	17.0(53)	24.4(76)	0.6(2)	6.7(21)	16.0(50)	0.6(2)	0.3(1)

자녀문제 연령	성격이상	품행불량	도 벽	흡 연	음 주	거짓말	싸 음
30세이하	2.4				2.4	2.4	2.4
31-40세	7.0					3.5	
41-50세	1.1	2.2			3.2	2.2	
51-60세	1.9		1.9				
61세이상		2.6			2.6		
합계(실수)	2.9(9)	1.0(3)	0.3(1)		1.6(5)	1.9(6)	0.3(1)

연령 \ 자녀문제	달선·비행	남비벽	가출	취업	기타	합계(실수)			
30세이하	4.8				23.9	100.0(42)			
31~40세					18.7	100.0(86)			
41~50세					1.1	4.3	9.7	100.0(93)	
51~60세	0.6(2)	2.6			19.2	100.0(52)			
61세이상					0.3(1)	0.3(1)	7.7	35.9	100.0(39)
합계(실수)					0.3(1)	0.3(1)	5.4(17)	19.4(61)	100.0(312)

P=.0000

해도 6.3%에 불과하였다. 한편 자녀문제에 대한 인식은 세대주 처의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세대주 처의 연령에 따른 자녀문제 인식을 보면 자녀가 학생인 3,40대의 부모의 경우는 성적문제의 지적이 많이 나타나고, 상급학교에 진학할 자녀를 둔 연령인 4,50대의 경우는 상급학교 진학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많은 반면 자녀가 아직 유아기인 30세 이하 부모의 경우는 건강문제에 대한 지적이 많다. 취업문제의 경우는 50대 부모들의 경우 많이 지적하였다.

Ⅲ. 평택시민의 사회복지관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 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한 태도

1) 사회복지관 인식 여부

사회복지관 인식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29>와 같다. 표를 보면 중

<표 29> 세대주의 학력에 따른 사회복지관 인식 여부

학력 \ 인지여부	안 다	모 른 다	합계(실수)
대졸이상	64.0	36.0	100.0(100)
고 졸	47.6	52.4	100.0(235)
중 졸	35.9	64.1	100.0(92)
국 졸	34.6	65.4	100.0(52)
국졸이하	13.6	86.4	100.0(22)
합계(실수)	45.9(230)	54.1(271)	100.0(501)

P=.0006

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 아는 경우가 45.9%이고 절반 이상인 54.1%는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이는 세대주의 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학력이 높을수록 많은 비율이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그러나 종합사회복지관을 모르는 비율이 대졸 이상의 경우도 36.0%이고 국졸이하의 경우는 86.4%인 것을 보면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의 활동에 대한 홍보 및 선전이 요청된다 하겠다.

2) 평택시 건립 찬성여부

평택시에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되는 것에 대한 찬성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표 30>과 같다. 표를 보면 거의 대부분인 98.6%가 찬성을 하고 있고 반대

<표 30> 평택시에 사회복지관 건립 찬성여부

찬성 여부	인원 수	백분율
찬성한다	506	98.6
반대한다	7	1.4
합 계	513	100.0

의사를 표명한 사람은 1.4%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이용의사에 대한 태도

가족에 어려운 문제 발생시 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상담할 의사를 조사한 결과는 <표 31>과 같다. 표를 보면 방문하여 상담하겠다고 답한 경우가 47.0%이고 문제에 따라 다르다고 답한 경우가 45.2%, 상담의사가 전혀 없는 경

<표 31> 세대주의 연령에 따른 이용의사에 대한 태도

이용의사 연령	전혀없다	문제에 따라 다르다	방문하여 상담하겠다	기 타	합계(실수)
30세이하		57.1	42.9		100.0(49)
31~40세	7.8	55.3	36.3	0.6	100.0(179)
41~50세	5.3	38.1	54.9	1.8	100.0(113)
51~60세	8.8	34.3	53.9	2.9	100.0(102)
61세이상	7.1	38.6	54.3		100.0(70)
합계(실수)	6.6(34)	45.2(232)	47.0(241)	1.2(6)	100.0(513)

.P=.0059

우는 6.6%에 불과하였다. 이용의사는 세대주의 연령과 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세대주의 연령에 따른 이용의사에 대한 태도를 보면 40대 이상은 방문하여 상담하겠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 많았다.

세대주의 학력에 따른 이용의사에 대한 태도를 보면 학력이 낮을수록 방문하여 상담하겠다고 답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서 대졸 이상의 경우는 62.0%가

문제에 따라 다르다고 답하고 방문하여 상담하겠다는 경우는 31.0%에 불과한 데 비하여 국졸 이하의 경우는 72.7%가 방문하여 상담하겠다고 답했다. (〈표 32〉 참조)

〈표 32〉 세대주의 학력에 따른 이용의사에 대한 태도

이용의사 학력	전혀없다	문제에 따라 다르다	방문하여 상담하겠다	기 타	합계(실수)
대졸이상	7.0	62.0	31.0	0.	100.0(100)
고 졸	7.3	45.7	47.1	0.9	100.0(234)
중 졸	6.5	35.9	57.6	3.3	100.0(92)
국 졸	7.7	30.8	61.5	1.9	100.0(52)
국졸이하		27.3	72.7		100.0(22)
합계(실수)	6.8(34)	44.8(224)	47.2(236)	1.2(6)	100.0(500)

P=.0060

4) 모금사업 참여의사 여부

평택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모금사업을 실시할 경우 참여의사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33〉과 같다. 표를 보면 전체의 73.3%가 참여의사가 있다고

〈표 33〉 거주지역에 따른 모금사업 참여의사 여부

참여의사 거주지역	있 다	없 다	기 타	합계(실수)
서 부 동	58.5	30.5	11.0	100.0(80)
신 평 동	79.6	11.8	8.6	100.0(92)
통 북 동	73.0	15.9	11.0	100.0(82)
비전1동	76.3	10.0	13.8	100.0(83)
비전2동	85.9	6.5	7.6	100.0(92)
세 교 동	64.2	14.8	21.0	100.0(81)
합계(실수)	73.3(374)	14.7(75)	12.0(61)	100.0(510)

P=.0013

응답했고 참여의사가 없다고 답한 경우는 14.7%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평택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모금이 필요할 경우, 효율적인 홍보와 자원동원 방법을 사용하여 자발성에 기초한 참여의사를 결집시키려는 노력이 요청된다 하겠다. 모금사업 참여의사는 거주지역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거주지역에 따른 모금사업 참여의사를 보면 가장 많은 비율이 참여의사를 밝힌 곳은 비전2동(85.9%)과 신평동(79.6%)이고 서부동(58.5%)과 세교동(64.

2%)이 가장 적음을 알 수 있다.

자원봉사 참여 경험 여부에 따른 모금 사업 참여의사 여부를 보면 자원봉사를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 모금에 참여 하겠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34〉 자원봉사 참여 여부에 따른 모금사업 참여의사 여부

모금 참여의사 자원봉사 참여여부	있 다	없 다	기 타	합계(실수)
참여 경험 없다	69.5	17.2	13.3	100.0(361)
참여 경험 있다	83.8	8.5	7.7	100.0(144)
합계(실수)	73.3(370)	14.7(74)	12.1(61)	100.0(505)

P=.0054

5) 사회복지관 재정의 주체

사회복지관 재정운영의 주체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35〉와 같다. 표를 보면 전액 국고나 시에서 지원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50.6%, 일부 국가의 지원과 일부는 이용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49.4%로 두가지 의견이 거의 같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35〉 사회복지관 재정운영의 주체

재정의 주체	인 원 수	백 분 율
전액 국고나 시	259	50.6
일부 국가지원과 일부 이용자 부담	253	49.4
합 계	512	100.0

2. 실시사업의 우선순위

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기를 바라는 사업을 2개씩 선택하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36〉과 같다. 이를 보면 실시사업의 우선순위는 직업훈련 및

〈표 36〉 사회복지관 실시사업의 우선순위

실시 사업	인 원 수	백 분 율
무료 진료사업	209	21.0
무료 예식장사업	75	7.5
기술교육 실시	223	22.4
직업훈련 및 안내	233	23.4
탁아사업	78	7.8
장애인 통원복지사업	168	16.9
기 타	9	1.0
합 계	995	100.0

안내 23.4%, 기술교육 실시 22.4%, 무료 진료사업 21.0%, 장애인 통원 복지 사업 16.9%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도 <표 2>에서 나타난 것처럼 구직에 관한 사업을 선택한 것이 45.8%로 지역주민의 구직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다.

3. 각 사업별 원하는 프로그램

1) 아동

사회복지관에서 아동을 위해 실시하기를 원하는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는 <표 37>과 같다. 표를 보면 특기교육이 40.8%로 가장 많고, 불우아동 결연 사업 31.5%, 탁아소 운영 15.3%, 어린이 공부방 제공 11.3%의 순이다. 이는 세대주 처의 학력에 따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대주 처의 학력이 높은 경우 탁아소 운영과 불우아동 결연사업을 행하기를 원하고 있고 학력이 낮은 경우 특기교육을 원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37> 세대주 처의 학력에 따른 원하는 아동프로그램

프로그램 학력	탁아소운영	어린이 공부방 제공	특기교육 (주산, 컴퓨터등)	불우이웃 결연사업	기타	합계(실수)
대졸이상	33.4	3.3	23.3	40.0		100.0(30)
고 졸	18.4	10.2	37.4	33.0	1.0	100.0(206)
중 졸	13.8	12.8	49.5	23.9		100.0(109)
국 졸	3.8	16.5	43.0	34.2	2.5	100.0(79)
국졸이하	10.0	5.0	45.0	35.0	5.0	100.0(20)
합계(실수)	15.3(68)	11.3(50)	40.8(181)	31.5(140)	1.1(5)	100.0(444)

P=.0170

2) 청소년

사회복지관에서 청소년들을 위해 실시하기를 바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38>과 같다. 표를 보면 고민 및 진로상담이 55.7%로 가장 많고 독서실 운영 23.4%, 그룹활동 19.6%의 순이다. 이를 보면 청소년 프로그램 계획시에는 수혜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청된다 하겠다.

3) 주부

사회복지관에서 가정의 주부들에게 실시하기를 바라는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

〈표 38〉 가족전체의 수입에 따른 원하는 청소년 프로그램

수입 \ 프로그램	고민 및 진로상담	독서실운영	그룹활동	기 타	합계(실수)
20만원이하	60.7	14.3	21.4	3.6	100.0(28)
20~40만원	54.1	27.7	17.6	0.7	100.0(148)
40~60만원	49.6	24.8	22.6	3.0	100.0(133)
60~80만원	56.1	31.8	12.1		100.0(66)
80~100만원	53.1	16.3	30.6		100.0(49)
100~120만원	92.3	7.7			100.0(13)
120만원이상	70.3	8.1	21.6		100.0(37)
합계(실수)	55.7(264)	23.4(111)	19.6(93)	1.3(6)	100.0(474)

P=.0258

과는 〈표 39〉와 같다. 표를 보면 교양교육 32.8%, 부업알선 27.3%, 취미교실 24.6%, 가정문제 상담 14.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가를 이용할 수 있는 활동인 취미교실과 교양교육에 대한 욕구가 57.8%로 높으며 경제적 욕구인 부업알선의 욕구도 24.3%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주부 프로그램은 세대주 처의 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학력이 높을

〈표 39〉 세대주 처의 학력에 따른 원하는 주부 프로그램

프로그램 \ 학력	부업알선	취미교실	가정문제상담	교양교육	기 타	합계(실수)
대졸이상	16.7	30.0	6.7	43.3	3.3	100.0(30)
고 졸	20.4	27.7	15.0	36.4	0.5	100.0(206)
중 졸	34.5	21.8	15.5	28.2		100.0(110)
국 졸	29.1	19.0	17.7	34.2		100.0(79)
국졸이하	60.0	15.0	5.0	15.0	5.0	100.0(20)
합계(실수)	27.0(120)	24.3(108)	14.6(65)	33.5(149)	0.7(3)	100.0(445)

P=.0027

수록 여가선용에의 욕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이 낮은 경우는 부업알선과 같은 경제적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4) 노인

사회복지관에서 노인복지 사업으로 적합한 프로그램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40〉과 같다. 표를 보면 노인 부업실 운영 36.6%, 노인대학 운영 32.7%, 불우노인 결연 18.5%, 노인문제상담 11.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면 노인의 경우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에의 욕구가 55.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여가선용의 욕구는 2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0〉 원하는 노인복지사업 프로그램

프로그램	인원수	백분율
노인문제 상담	58	11.3
노인대학(학교)운영	168	32.7
노인 부업실 운영	188	36.6
불우노인 결연	95	18.5
기 타	4	0.8
합 계	513	100.0

IV. 결 론

1. 요약

본 연구는 평택시 6개동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실태, 가정문제, 복지의식, 복지욕구, 종합사회복지관의 인식 및 태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평택종합사회복지관 설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문헌고찰을 기초로 질문지를 작성하고 평택시 거주민 500여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하였다. 자료는 빈도, 평균, 백분율 등의 통계방법을 적용하여 S.P.S.S.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밝혀진 주요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평택시민의 직업은 자영상인이 38.3%로 가장 많고 사무직, 자영농민 등의 순이며, 이들의 출생지는 평택 및 경기도가 가장 많고 가족수는 평균 3.8인이다.

(2) 평택시민의 수입은 59.2%가 20~60만원대이며, 40%가 월 평균 20~40만원을 지출하며 54%가 수입의 20%이내를 저축한다. 이들의 총 재산액은 2,000만원 이하가 45%이고 자기집을 소유한 사람이 57.4%이며 평균 2.3개의 방을 사용한다.

(3) 평택시 거주기간을 보면 75%가 5년 이상이며 대체로 앞으로도 계속 거주하기를 원한다. 평택시의 사회문제에 대하여는 68%가 타도시보다 많다고 생각

* 이 논문의 요약은 서두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지방자치제와 평택시 지역복지 모델에 관한 연구」에서 분석된 내용의 전체요약임.

하며, 서부동·세교동을 평택시에서 가장 낙후한 지역이라고 인식한다.

(4)평택시의 가정문제는 세대주의 경제력과 과음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 스스로 혹은 가족체계 내에서 해결한다. 부모자녀관계, 부부관계, 고부관계는 각기 80%, 75.8%, 61.6%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은 집에서 쉬거나 취미·부업에 종사하며 질병과 외로움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5)평택시민의 복지의식은 대체로 보완적 자유주의형에 가까워서 사회문제의 책임은 주로 개인 및 사회, 개인에 있다고 보고, 주요 사회문제의 해결주체는 정부라고 인식하며 영세민에게 단순한 물질적 도움을 주기 보다는 자립의 터전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의식한다.

(6)주민의 28.5%가 지역사회, 사회단체 등에서 자원봉사의 경험이 있으며 자원봉사의 경험이 없는 경우 방법을 몰라서 참여하지 못한 경우도 20.2%에 이르렀다. 불우이웃돕기는 도움을 주기만 한 경우가 31.6%, 도움을 주고 받은 적이 없는 경우가 30.8%, 도움을 주고 받은 경우가 16.7%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현금, 의류 등을 제공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

(7)상부상조 모임으로는 50.6%가 친목계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웃과는 55.1%가 왕래하며 도움을 주고 받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이다. 생활보호사업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58.1%였다.

(8)영세민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으로는 취업알선(45.2%), 생계비 지원(22.1%), 직업훈련(13.8%)등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상담으로는 자녀교육상담이 33.4%로 가장 많고 주택상담, 취업알선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복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시설로는 34.7%가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적했으며 그 외 도서관, 보건소, 양로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9)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 가정은 18.5%인데 그 순서는 장남, 모, 차남의 순이었다. 부인이 부업을 원하는 사람은 22.2%인데 이중 시간제 부업을 원할 경우 81.5%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원했으며 5.9%가 탁아모를 원했다.

(10)심신장애가 있는 가정은 전체의 4.5%이고 그중 경증 지체장애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장애자의 경우 건강문제는 주로 병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정은 전체의 18.8%인데 이중 모 8.5%, 부 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1)집안사정으로 진학하지 못한 자녀가 있는 가정은 5.5%이고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못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전 아동이 있는 경우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가 35.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사설학원(19.4%), 집

에서 부모가 교육한다(17.5%)의 순이었다. 자녀문제는 상급학교 진학(24.4%), 성적불량(17.0%), 건강(16.0%), 친구문제, 취업 등의 순이었으며 이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12)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는 45.2%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하여는 절대다수인 98.6%가 찬성을 하며, 이용의사를 살펴보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방문하여 상담하겠다(47.0%)와 문제에 따라 다르다(45.0%)고 답한 경우가 비슷하게 나타난다. 복지관 건립을 위한 모금사업을 할 경우 73.1%가 참여의사를 보이고 있으며 복지관 재정의 주체에 대하여는 정부이어야 한다(50.6%)는 주장과 일부 국가지원과 일부 이용자 부담으로 해야 한다(49.4%)는 주장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13) 실시사업의 우선순위는 무료진료사업(40.6%), 기술교육실시(27.1%), 직업훈련 및 안내(14.1%), 무료예식장 사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적합한 아동 프로그램으로는 특기교육(38.2%), 불우아동 결연사업(32.0%), 탁아소 운영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프로그램은 고민 및 진로상담(55.3%), 독서실 운영(23.8%) 등이고, 주부프로그램으로는 교양교육(32.2%), 부업알선(27.7%), 취미교실 등의 순이며 노인 프로그램으로 적합한 것은 노인 부업실 운영 36.6%, 노인학교 운영 32.7%, 불우노인 결연 등으로 나타났다.

2. 평택종합사회복지관 건립추진을 위한 제언

1) 사회복지관의 유형

사회복지관의 시설 설치기준은 ① 종합사회복지관 가형(건평 : 2,000㎡이상, 직원 25명) ② 종합사회복지관 나형(1,000㎡이상 2,000㎡미만, 직원 20명) ③ 사회복지관 (500㎡이상 1,000㎡미만, 직원 12명)으로 되어 있다.

인구 8만명의 중소도시인 평택시에는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규정” 제10조 “인구 10만명 미만의 시, 군, 구는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 또는 사회복지관 2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거하여 종합사회복지관 나형(건평 : 1,000㎡이상 2,000㎡이하, 직원 20명)의 설치가 바람직할 것이다.

2) 설립위치

상기조사에 의하면 평택시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동)과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응답결과는 서부동과 세교동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관의 설립위치는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주민의 연대감을 조성한다는 목표(운영규정 제 3 조)”와 “시설의 입지조건(운영규정 제11조)

① 저소득층 집단 거주지역 ② 공단주변지역 ③ 역주변 등 특수문제 발생지역

및 취약지역 ④ 기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규정을 참고해 보면 평택시에는 가능하면 서부동이나 세교동에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요망된다.

그러나 평택시의 지역적인 특성 즉 중심부인 평택역을 중심으로 자동차로는 10분내외 도보로도 20분~30분이면 어느 지역이나 연결될 수 있다는 인근성(밀집성)을 고려해 보면 타지역이라 할지라도 건립장소만 확보되면 장소선정에 있어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다.

3) 부지확보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부지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데 있다. 앞서서도 제기한 바와 같이 평택시에 적합한 설치기준 “종합사회복지관 나형”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1,000㎡~2,000㎡의 건평을 확보할 수 있는 대지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택시 당국의 정책적인 결정(예: 시유지의 용도변경 등)내지는 평택시 지역유지들의 적극적인 협조(예: 지역발전을 위한 부지의 제공, 또는 부지매입자금 지원 등)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4) 운영주체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주체(운영규정 제13조)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관을 누가 설립하고 운영하느냐 하는 사항은 부지확보와 함께 결정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평택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운영주체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예상된다.

첫째는, 지방자치단체(시)에서 사회복지관을 설치한 후 사회복지법인(社會福祉法人)등에 위탁운영하는 방안(운영규정 제13조 ②항)

둘째는, 기존 사회복지법인체에 모든 것을 위임하여 사회복지관의 설립에서 운영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운영규정 제13조 ③항)

셋째, 평택시 지역유지로 하여금 이사회를 구성하여 사회복지법인을 신설하여 사회복지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넷째, 비영리법인에 위탁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운영규정 제13조 ①항)에 의거하여 현재 평택시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법인 피어선신학교에서 사회복지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사회복지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중에서 이화여대, 중앙대, 성심여대, 한림대 등에서는 부설로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상에서 제기한 네가지 안(案)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결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첫째안과 둘째안은 기존의 전문사회복지법인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부지만 마련되면 사회복지관 건립을 그만큼 앞당길 수도 있다. 그러나 세번째 안은 새롭게 이사회를 구성 사회복지법인 허가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네번째의 비영리법인 즉 학교법인인 피어선신학교에서도 사회복지학과가 설치되어 있어 사회복지관 건립에 의욕을 갖고 있다. 즉 학교앞의 부지라면 사회복지관을 건립할 수도 있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나 현재 피어선신학교의 부지는 주택지와 다소 떨어져 있어 인근성(지역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기도 한다.

평택종합사회복지관의 건립은 평택시나 지역유지들에 의한 사유지나 대지의 확보와 함께 사회복지법인체 혹은 학교법인인 피어선신학교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5) 재원 마련

앞의 조사자료 <표 33>에 의하면 평택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모금활동에 73.1%가 참여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것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평택시민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관 운영의 기본원칙”(운영규정 제 4 조 ⑦ 항)에 보면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복지자원을 최대한 동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 평택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있어서도 사회복지관에 대한 인식제고와 지역주민의 연대감 형성을 위해서도 적은 액수라 하더라도 뜻있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모금활동이 필요하다.

6) 평택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위원회의 조직

이상에서 제기한 다섯가지 사항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서는 “평택종합사회복지관 건립추진위원회”를 조직할 필요가 있다. 이 위원회는 평택시시정자문위원, 지역주민대표, 관계공무원, 사회복지법인 운영자, 피어선신학교 등이 참여하여 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고 이를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